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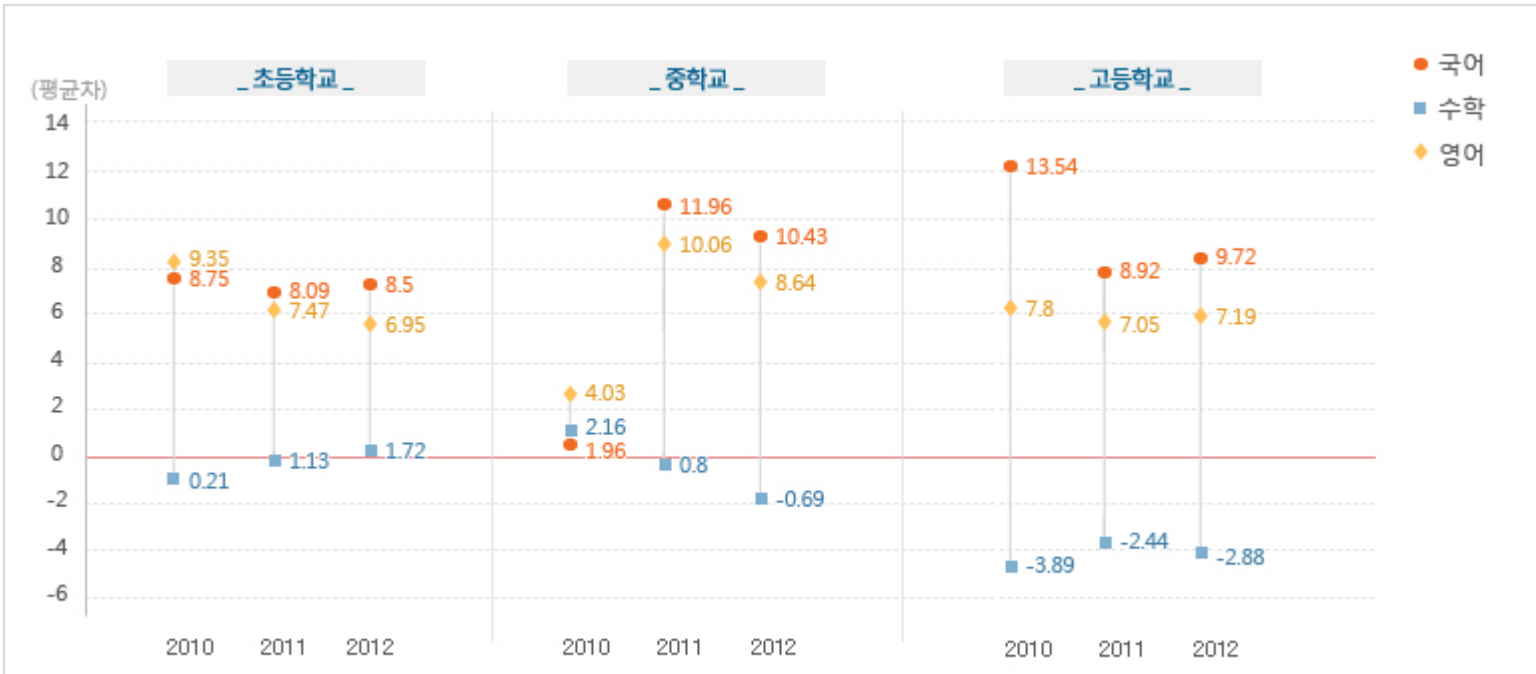
학업성취도 포커스 2013년 제1호

남학생과 여학생, 학업성취와 학습습관이 어떻게 다른가

학습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며, 학습습관에는 남·여 간에 어떤 특징이나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학업성취도와 학습습관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본다.

국어, 영어에서는 여학생이 우수, 수학은 남·여학생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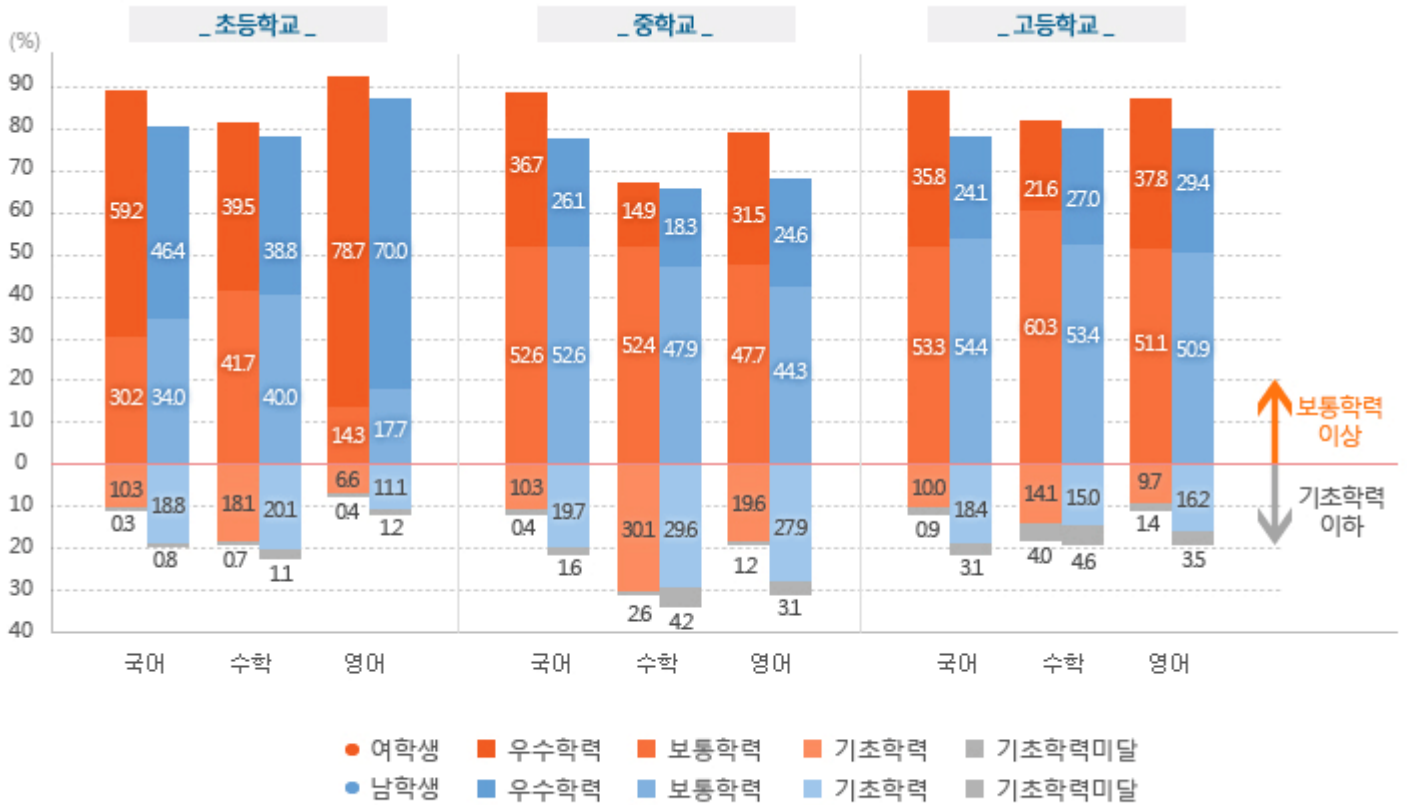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간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림 1]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에서 남·여간 평균 차(여학생 평균-남학생 평균)를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양수(+)이면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음수(-)이면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균 차이 (2010~2012년)

국어, 영어 과목의 경우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남·여간 평균 차이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고등학교에서는 -2.44~ -3.89로 일관되게 음의 값을 보인다. 즉,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성별에 따른 성취수준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는 성별에 따른 과목별 성취수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로축의 0점을 기준으로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비율은 0점 축의 위쪽에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점 축의 아래 쪽에 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보통학력+우수학력)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다만 수학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의 우수학력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아서, 중·고등학교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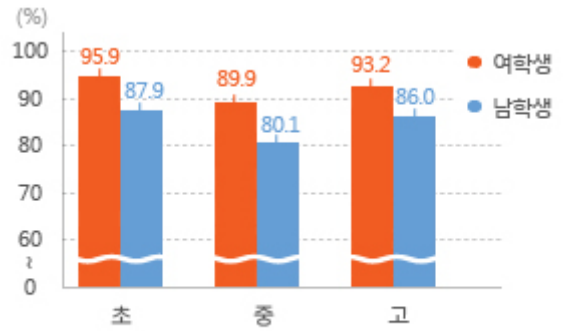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목별 성취수준 비율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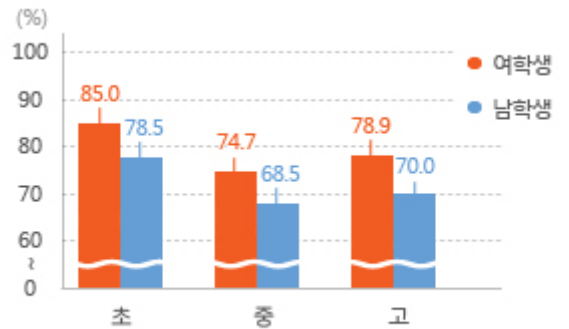
여학생이 수업 준비와 집중도가 높아...

학업성취에 있어서 남·여간 차이는 수업태도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등 학습 습관의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실시된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난다.

학습자료나 준비물 등을 잘 챙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수업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학교 남학생의 약 20%는 학습자료나 준비물을 잘 챙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에 잘 집중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더 높다. 수업에 집중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에서 여학생 85%, 남학생 78.5%로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초등 학교에 비해 약 10% 정도씩 '그렇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중 수업에 집중한다고 답한 학생은 약 70% 정도로 나머지 약 30%의 학생들은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업 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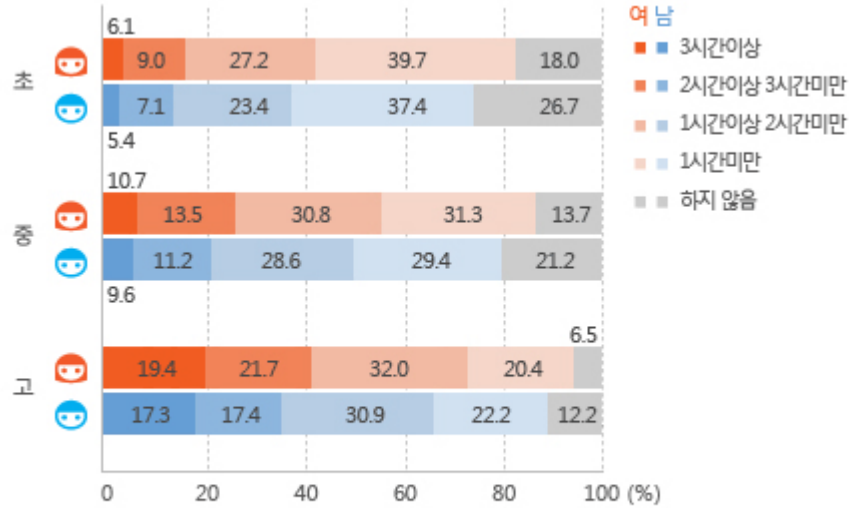


[그림 4]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업 집중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여학생이 더 길어...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과서나 참고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학교급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1 시간 미만'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데 비해 중학교에서는 '1 시간 미만' 또는 '1 시간 ~ 2 시간'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에서는 '1 시간 ~ 2 시간'이란 응답이 가장 높으면서도 중학교에 비해 '2~3 시간' '3 시간 이상'이란 응답도 크게 늘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하루에 3 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한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5.4%, 여학생 6.1%, 중학교에서 남학생 9.6%, 여학생 10.7%,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17.3%, 여학생 19.4%로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일관되게 높았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하지 않음)고 답한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26.7%, 여학생 18.0%,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21.2%, 여학생 13.7%,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 12.2%, 여학생 6.5%로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5] 남학생과 여학생의 하루 중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